

# **매일 미사 전례 독서**

**2010년 12월**

**한국 천주교 주교회의**

## 신심 미사 이스라엘의 선택된 후에 복되신 동정 마리아

**제1독서** <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, 주님의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(루카 1,55).>

▣ 창세기의 말씀입니다. 12,1-7

그 무렵 <sup>1</sup>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. “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,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. <sup>2</sup>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, 너에게 복을 내리며,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.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. <sup>3</sup>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,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.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.”

<sup>4</sup> 아브람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.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.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, 그의 나이는 일흔다섯 살이었다. <sup>5</sup> 아브람은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, 자기가 모은 재물과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나서,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.

<sup>6</sup> 아브람은 그 땅을 가로질러 스켄의 성소, 곧 모레의 참나무가 있는 곳에 다다랐다.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족이 살고 있었다. <sup>7</sup>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. “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.” 아브람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**화답송** 시편 113(112),1-2.3-4.5-6.7-8(◎ 2 참조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주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미받으소서.

<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>

○ 찬양하여라, 주님의 종들아. 찬양하여라, 주님의 이름을.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, 이제부터 영원까지. ◎

○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, 주님의 이름은 찬양받으소서. 주님은 모든 민족들 위에 높이시고,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시네. ◎

○ 누가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 같으랴? 드높은 곳에 좌정하신 분, 하늘과 땅을 굽어보시는 분. ◎

○ 억눌린 이를 흙먼지에서 일으켜 세우시고, 불쌍한 이를 잿더미에서 들어

올리시는 분. 귀족들과, 당신 백성의 귀족들과 그들을 한자리에 앉히시네. ◎

## 복음 환호송

◎ 알렐루야.

○ 이사이의 뿌리, 민족들의 깃발로 우뚝 서신 분, 지체 없이 오시어, 저희를 구원하소서.

◎ 알렐루야.

**복 음** <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>

✠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,1-17

<sup>1</sup>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.

<sup>2</sup> 아브라함은 이사악을 낳고, 이사악은 야곱을 낳았으며,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. <sup>3</sup>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,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,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. <sup>4</sup>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,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,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. <sup>5</sup>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,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벧을 낳았다. 오벧은 이사이를 낳고, <sup>6</sup>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.

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, <sup>7</sup>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,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,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. <sup>8</sup> 아삽은 여호사팟을 낳고, 여호사팟은 여호람을 낳았으며,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. <sup>9</sup>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,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,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. <sup>10</sup> 히즈키야는 므나쎄를 낳고, 므나쎄는 아몬을 낳았으며,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. <sup>11</sup>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.

<sup>12</sup>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, 스알티엘은 즈루빠벨을 낳았다. <sup>13</sup> 즈루빠벨은 아비훗을 낳고, 아비훗은 엘야קים을 낳았으며, 엘야קים은 아조르를 낳았다. <sup>14</sup>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,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,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. <sup>15</sup> 엘리웃은 엘아자르를 낳고,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,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. <sup>16</sup>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,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.

<sup>17</sup>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십사 대이고,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십사 대이며,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십사 대이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## 12월 1일 대림 제1주간 수요일

**제1독서** <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잔치를 베푸시고, 그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내신다.>

▣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.

25,6-10ㄱ

그날에 <sup>6</sup> 만군의 주님께서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진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, 살지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 거른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. <sup>7</sup> 그분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거래들에게 씌워진 너울과,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시리라.

<sup>8</sup>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 버리시리라. 주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내시고,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 주시리라. 정녕 주님께서 말씀하셨다.

<sup>9</sup> 그날에 이렇게들 말하리라. “보라, 이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.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,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.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주님이시다.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. <sup>10</sup> 주님의 손이 이 산 위에 머무르신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### 화답송

시편 23(22),1-3ㄱ.3ㄴ-4.5.6(◎ 6ㄷ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.

<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>

○ 주님은 나의 목자, 아쉬울 것 없어라.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,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,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. ◎

○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.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,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.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,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. ◎

○ 원수들 보는 앞에서,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,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,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. ◎

○ 제 한평생 모든 날에,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,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. ◎

### 복음 환호송

◎ 알렐루야.

○ 보라, 당신 백성 구원하러 주님이 오시리니, 주님을 맞이하러 달려가는 이는 복되어라.

◎ 알렐루야.

**복 음** <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 주시고, 빵을 많게 하셨다.>

✠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5, 29-37

그때에 <sup>29</sup>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로 가셨다.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. <sup>30</sup> 그러자 많은 군중이 다리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,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다. 그들을 그분 발치에 데려다 놓자,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 주셨다. <sup>31</sup>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,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, 다리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,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,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.

<sup>32</sup>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. “저 군중이 가엾구나.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.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.”

<sup>33</sup> 제자들이 예수님께 “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?” 하고 말하였다.

<sup>34</sup> 예수님께서 “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?” 하시자, 그들이 “일곱 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.” 하고 대답하였다. <sup>35</sup>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. <sup>36</sup> 그리고 빵 일곱 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,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,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.

<sup>37</sup>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.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일곱 바구니에 가득 찼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## 12월 2일 대림 제1주간 목요일

**제1독서** <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겨레가 들어가게 하여라.>

□□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.

26, 1-6

<sup>1</sup> 그날 유다 땅에서는 이러한 노래가 불리리라.

“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네.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성벽과 보루를 세우셨네. <sup>2</sup>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겨레가 들어가게 너희는 성문들을 열어라. <sup>3</sup> 한결같은 심성을 지닌 그들에게 당신께서 평화를, 평화를 베푸시니, 그들이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.

<sup>4</sup> 너희는 길이길이 주님을 신뢰하여라. 주 하느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다. <sup>5</sup> 그분께서는 높은 곳의 주민들을 낮추시고, 높은 도시를 헐어 버리셨으며, 그것을 땅바닥에다 헐어 버리시어 먼지 위로 내던지셨다. <sup>6</sup> 발이 그것을 짓밟는다. 빈곤한 이들의 발이, 힘없는 이들의 발길이 그것을 짓밟는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## 화답송

시편 118(117), 1과 8-9, 19-21, 25-27 ㄱ(◎ 26 ㄱ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주님은 좋으신 분, 찬송하여라.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.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. 제후들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. ◎

○ 정의의 문을 열어라, 그리로 들어가 나는 주님을 찬송하리라. 이것은 주님의 문, 의인들이 들어가리라. 당신은 제게 응답하시고, 구원이 되어 주셨사오니, 저는 당신을 찬송하나이다. ◎

○ 주님,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. 주님, 번영을 이루어 주소서.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.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. 주님은 하느님, 우리를 비추시네. ◎

## 복음 환호송

이사 55,6

◎ 알렐루야.

○ 만나 뵈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.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.

◎ 알렐루야.

**복 음** 〈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하늘 나라에 들어간다.〉

✠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7, 21, 24-27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

<sup>21</sup> “나에게 ‘주님, 주님!’ 한다고 모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.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.

<sup>24</sup>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. <sup>25</sup>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,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, 무너지지 않았다.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.

<sup>26</sup>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. <sup>27</sup>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,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, 무너져 버렸다.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## 12월 3일 금요일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(선교의 수호자) 대축일

**제1독서** 〈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상속 재산이 되신다.〉

▮ 신명기의 말씀입니다. 10,8-9

그 무렵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.

<sup>8</sup> “주님께서서는 레위 지파를 따로 가려내셔서, 주님의 계약 궤를 나르게 하시고, 주님 앞에 서서 당신을 섬기며,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하셨는데,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다. <sup>9</sup> 그 때문에 레위인에게는 동족과 함께 받을 몫도, 상속 재산도 없다. 그 대신에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,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상속 재산이 되신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**화답송**

시편 117(116),1.2(◎ 마르 16,15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주님을 찬양하여라, 모든 민족들아. 주님을 찬미하여라, 모든 겨레들아. ◎

○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.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. ◎

**제2독서** 〈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,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.〉

▮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. 9,16-19.22-23

형제 여러분, <sup>16</sup>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.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.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,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. <sup>17</sup> 내가 내 자유의사로 이 일을 한다면, 나는 삿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하는 수 없이 한다면, 나에게 직무가 맡겨진 것입니다.

<sup>18</sup> 그렇다면 내가 받는 삿은 무엇입니까?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것에 따른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,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입니다.

<sup>19</sup>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,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.

<sup>22</sup> 약한 이들을 얻으려고, 약한 이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.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,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. <sup>23</sup>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. 나도 복음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## 복음 환호송

마태 28,19-20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이 말씀하신다.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.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.

◎ 알렐루야.

**복 음** <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.>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6,15-20

그때에 <sup>15</sup>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이르셨다. “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. <sup>16</sup>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,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.

<sup>17</sup>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. 곧,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,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, <sup>18</sup>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,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.”

<sup>19</sup> 주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,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. <sup>20</sup>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. 주님께서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,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



확증해 주셨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## 12월 4일 대림 제1주간 토요일

**제1독서** <네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.>

▮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.

30, 19-21. 23-26

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.

<sup>19</sup> “정녕 예루살렘에 사는 너희 시온 백성아, 너희는 다시 울지 않아도 되리라. 네가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, 들으시는 대로 너희에게 응답하시리라.

<sup>20</sup>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곤경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시지만, 너의 스승이신 그분께서는 더 이상 숨어 계시지 않으리니, 너희 눈이 너희의 스승을 뵈게 되리라. <sup>21</sup> 그리고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거나 왼쪽으로 돌 때, 뒤에서 ‘이것이 바른길이니 이리로 가거라.’ 하시는 말씀을 너희 귀로 듣게 되리라.

<sup>23</sup> 그분께서 너희가 밭에 뿌린 씨앗을 위하여 비를 내리시니, 밭에서 나는 곡식이 여물고 기름지리라. 그날에 너희의 가축은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고, <sup>24</sup> 밭일을 하는 소와 나귀는 삼과 거름대로 까불러 간을 맞춘 사료를 먹으리라.

<sup>25</sup> 큰 살육이 일어나는 날, 탑들이 무너질 때, 높은 산 위마다, 솟아오른 언덕 위마다 물이 흐르는 도랑들이 생기리라. <sup>26</sup> 또, 주님께서 당신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, 당신의 매를 맞아 터진 곳을 낫게 해 주시는 날, 달빛은 햇빛처럼 되고, 햇빛은 일곱 배나 밝아져 이레 동안의 빛을 한데 모은 듯하리라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**화답송**

시편 147(146), 1-2. 3-4. 5-6(◎ 이사 30, 18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행복하여라,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 모두!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- 우리 하느님을 찬송하니 좋기도 하여라. 마땅한 찬양을 드리니, 즐겁기도 하여라.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,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네.
- ◎ 행복하여라,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 모두!
-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치시고,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네. 별들의 수를 정하시고, 날날이 그 이름 지어 주시네. ◎
-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넘치시네. 그 지혜는 헤아릴 길 없네. 주님은 가난한 이를 일으키시고,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네. ◎

## 복음 환호송

이사 33,22

- ◎ 알렐루야.
- 주님은 우리의 통치자, 주님은 우리의 지도자, 주님은 우리의 임금님, 그분이 우리 구원하시리라.
- ◎ 알렐루야.

**복 음** 〈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.〉

✠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9,35—10,1.6-8

그때에 <sup>35</sup>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,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,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.

<sup>36</sup>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.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. <sup>37</sup>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. <sup>38</sup>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.”

<sup>10,1</sup>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,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,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게 하셨다.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. <sup>6</sup> “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. <sup>7</sup> 가서 ‘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.’ 하고 선포하여라. <sup>8</sup> 앓는 이들을 고쳐 주고,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.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 주고, 마귀들을 쫓아내어라.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12월 5일  
**대림 제2주일**  
(인권 주일)

**제1독서** <그는 가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하리라.>

▣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.

11, 1-10

그날에 <sup>1</sup>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,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. <sup>2</sup>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, 지혜와 슬기의 영, 경륜과 용맹의 영,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함이다.

<sup>3</sup> 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흐뭇해하리라.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,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리라. <sup>4</sup>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고, 이 땅의 가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하리라.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막대로 무뢰배를 내리치고,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악인을 죽이리라.

<sup>5</sup> 정의가 그의 허리를 두르는 띠가 되고, 신의가 그의 몸을 두르는 띠가 되리라.

<sup>6</sup>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,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.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찌 가고,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. <sup>7</sup>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,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.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, <sup>8</sup> 젖먹이가 독사 굴 위에서 장난하며, 젖 떨어진 아이가 살무사 굴에 손을 디밀리라.

<sup>9</sup>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,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앎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.

<sup>10</sup>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. 이사이의 뿌리가 민족들의 깃발로 세워져, 겨레들이 그에게 찾아들고, 그의 거처는 영광스럽게 되리라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**화답송**

시편 72(71), 1-2. 7-8. 12-13. 17(◎ 7ㄴㄷ 참조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주님의 시대에 정의가 꽃피게 하소서. 큰 평화가 영원히 꽃피게 하소서.

<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>

- 하느님,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,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.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,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.
- ◎ 주님의 시대에 정의가 꽃피게 하소서. 큰 평화가 영원히 꽃피게 하소서.
-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,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.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,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. ◎
-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,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. 약한 이,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,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. ◎
- 그의 이름 영원히 이어지며, 그의 이름 해처럼 솟아오르게 하소서.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, 그를 칭송하게 하소서. ◎

**제2독서** <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니다.>

□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.

15.4-9

형제 여러분, <sup>4</sup>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. <sup>5</sup> 인내와 위로의 하느님께서,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뜻을 같이하게 하시어, <sup>6</sup> 한마음 한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빕니다.

<sup>7</sup>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, 여러분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. <sup>8</sup> 나는 단언합니다.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께서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 받은 이들의 종이 되셨습니다. 그것은 조상들이 받은 약속을 확인하시고, <sup>9</sup> 다른 민족들은 자비하신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.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. “그러기에 제가 민족들 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송하고,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바칩니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**복음 환호송**

루카 3.4.6

◎ 알렐루야.

○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.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.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.

◎ 알렐루야.

**복 음** <회개하여라.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.>

✱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3,1-12

<sup>1</sup>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. <sup>2</sup> “회개하여라.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.” <sup>3</sup>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.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. “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. ‘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.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.’”

<sup>4</sup> 요한은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,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.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.

<sup>5</sup>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, <sup>6</sup>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. <sup>7</sup>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, 그들에게 말하였다.

“독사의 자식들아,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? <sup>8</sup>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. <sup>9</sup> 그리고 ‘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.’ 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.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, 하느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. <sup>10</sup>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.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.

<sup>11</sup>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.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.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.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. <sup>12</sup>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,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,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## 12월 6일 대림 제2주간 월요일

**제1독서** <하느님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.>

□□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.

35,1-10

<sup>1</sup> 광야와 메마른 땅은 기뻐하여라. 사막은 즐거워하며 꽃을 피워라. <sup>2</sup> 수선화처럼 활짝 피고, 즐거워 뛰며 환성을 올려라. 레바논의 영광과, 카르멜과 사론의

영화가 그곳에 내려,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, 우리 하느님의 영화를 보리라.

<sup>3</sup> 너희는 맥 풀린 손에 힘을 붙여넣고, 꺾인 무릎에 힘을 돋우어라. <sup>4</sup>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. “군세어저라, 두려워하지 마라. 보라, 너희의 하느님을! 복수가 들이닥친다, 하느님의 보복이!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.”

<sup>5</sup> 그때에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,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. <sup>6</sup> 그때에 다리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, 말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. 광야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, 사막에서는 냇물이 흐르리라.

<sup>7</sup>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높이 되고, 바싹 마른 땅은 샘터가 되며, 승냥이들이 살던 곳에는 풀 대신 갈대와 왕골이 자라리라.

<sup>8</sup> 그곳에 큰길이 생겨 ‘거룩한 길’이라 불리리니, 부정한 자는 그곳을 지나지 못하리라.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앞장서 가시니, 바보들도 길을 잃지 않으리라.

<sup>9</sup>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, 맹수도 들어서지 못하리라. 그런 것들을 볼 수 없으리라. 구원받은 이들만 그곳을 걸어가고, <sup>10</sup> 주님께서 해방시키신 이들만 그리로 돌아오리라.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에 들어서리니, 끝없는 즐거움이 그들 머리 위에 넘치고,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과 함께하여,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## 화답송

시편 85(84),9-11과 10.11-12.13-14(◎ 이사 35,4ㄴ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보라,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. 당신 백성,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.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,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. ◎

○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,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.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,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. ◎

○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,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.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,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. ◎

## 복음 환호송

◎ 알렐루야.

○ 보라, 세상의 주님 임금님이 오시어, 사로잡힌 우리의 멍에를 몸소 벗겨 주시리라.

◎ 알렐루야.

**복 음** <우리가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.>

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5, 17-26

<sup>17</sup>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는데, 갈릴래아와 유다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도 앉아 있었다. 예수님께서서는 주님의 힘으로 병을 고쳐 주기도 하셨다.

<sup>18</sup> 그때에 남자 몇이 중풍에 걸린 어떤 사람을 평상에 누인 채 들고 와서, 예수님 앞으로 들여다 놓으려고 하였다. <sup>19</sup> 그러나 군중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일 길이 없어,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 내고, 평상에 누인 그 환자를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내려보냈다. <sup>20</sup>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. “사람아,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.”

<sup>21</sup>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. ‘저 사람은 누구인데,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?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?’

<sup>22</sup>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셨다. “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? <sup>23</sup> ‘너는 죄를 용서받았다.’ 하고 말하는 것과 ‘일어나 걸어가라.’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? <sup>24</sup>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.” 그리고 나서 중풍에 걸린 이에게 말씀하셨다. “내가 너에게 말한다. 일어나 네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.”

<sup>25</sup> 그러자 그는 그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, 자기가 누워 있던 것을 들고, 하느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다.

<sup>26</sup>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였다. 그리고 두려움에 차서, “우리가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.” 하고 말하였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## 12월 7일 화요일 성 암브로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

**제1독서** 〈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신다.〉

□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.

40,1-11

<sup>1</sup> 위로하여라, 위로하여라, 나의 백성을. — 너희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. — <sup>2</sup> 예루살렘에게 다정히 말하여라.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젖값이 치러졌으며,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, 주님 손에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.

<sup>3</sup> 한 소리가 외친다. “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.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에 길을 곧게 내어라. <sup>4</sup>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,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.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,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. <sup>5</sup>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,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.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.”

<sup>6</sup> 한 소리가 말한다. “외쳐라.” “무엇을 외쳐야 합니까?” 하고 내가 물었다. “모든 인간은 풀이요,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. <sup>7</sup> 주님의 입김이 그 위로 불어오면,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. 진정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. <sup>8</sup>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,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.”

<sup>9</sup>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,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.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, 너의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.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. 유다의 성읍들에게, “너희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시다.” 하고 말하여라.

<sup>10</sup> 보라, 주 하느님께서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. 당신의 팔로 왕권을 행사하신다. 보라,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,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서 서서 온다. <sup>11</sup> 그분께서는 목자처럼 당신의 가축들을 먹이시고, 새끼 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, 젖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**화답송**

시편 96(95),1-2.3과 107.11-12.13(◎ 이사 40,10 참조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보라, 우리 하느님이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주님께 노래하여라, 새로운 노래를. 주님께 노래하여라, 온 세상아.  
주님께 노래하여라, 그 이름 찬미하여라. 나날이 선포하여라, 그분의



구원을. ◎

- 전하여라,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,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. 겨레들에게 말하여라. “주님은 임금입니다.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십니다.” ◎
-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.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.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,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. ◎
- 그분이 오신다.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.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.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,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. ◎

### 복음 환호송

- ◎ 알렐루야.
- 주님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.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리라.
- ◎ 알렐루야.

**복 음** 〈하느님께서 작은 이들도 잃어버리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.〉

✠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18,12-14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

- <sup>12</sup> “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?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,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,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남겨 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? <sup>13</sup> 그가 양을 찾게 되면,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,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.
- <sup>14</sup>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## 12월 8일 수요일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

**제1독서** 〈나는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라.〉

▮ 창세기의 말씀입니다. 3,9-15.20

사람이 열매를 먹은 뒤, <sup>9</sup> 주 하느님께서 그를 부르시며, “너 어디

있느냐?” 하고 물으셨다.

<sup>10</sup> 그가 대답하였다. “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,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.”

<sup>11</sup> 그분께서 “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 주더냐? 내가 너에게 따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 먹었느냐?” 하고 물으시자, <sup>12</sup> 사람이 대답하였다.

“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, 제가 먹었습니다.”

<sup>13</sup> 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“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?” 하고 물으시자, 여자가 대답하였다.

“뱀이 저를 꺾어서 제가 따 먹었습니다.”

<sup>14</sup> 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. “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,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아, 네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 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. <sup>15</sup>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,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,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,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.”

<sup>20</sup>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. 그가 살아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## 화답송

시편 98(97), 1.2-3ㄴ.3ㄷ-4(◎ 1ㄴ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께 노래하여라, 새로운 노래를.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주님께 노래하여라, 새로운 노래를.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. 그분의 오른손이,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. ◎

○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.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.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. ◎

○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. 주님께 환성 올려라, 온 세상아.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, 찬미 노래 불러라. ◎

**제2독서** 〈하느님께서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.〉

□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.

1,3-6.11-12

<sup>3</sup>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시기를 빕니다.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. <sup>4</sup>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,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. 사랑으로 <sup>5</sup>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.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. <sup>6</sup>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.

<sup>11</sup> 만물을 당신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시는 분의 의향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몫을 얻게 되었습니다. <sup>12</sup> 그리하여 하느님께서서는 이미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## 복음 환호송

루카 1,28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님, 기뻐하소서.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, 여인 중에 복되시나이다.

◎ 알렐루야.

**복 음** 〈은총이 가득한 이여, 기뻐하여라.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.〉

✠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,26-38

그때에 <sup>26</sup> 하느님께서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, <sup>27</sup>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.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.

<sup>28</sup>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. “은총이 가득한 이여, 기뻐하여라.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.” <sup>29</sup>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.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.

<sup>30</sup>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. “두려워하지 마라, 마리아야.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. <sup>31</sup> 보라,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,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. <sup>32</sup>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,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.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, <sup>33</sup>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, 그분의 나라는 끝이

없을 것이다.”

<sup>34</sup> 마리아가 천사에게, “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,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?” 하고 말하자, <sup>35</sup>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.

“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,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.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,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. <sup>36</sup>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.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.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. <sup>37</sup>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.”

<sup>38</sup> 마리아가 말하였다. “보십시오,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.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”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## 12월 9일 대림 제2주간 목요일

**제1독서** 〈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너의 구원자이다.〉

▮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.

41,13-20

<sup>13</sup> 나 주님이 너의 하느님, 내가 네 오른손을 붙잡아 주고 있다. 나는 너에게 말한다. “두려워하지 마라.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.”

<sup>14</sup> 두려워하지 마라, 벌레 같은 야곱아,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!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. 주님의 말씀이다.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너의 구원자이다.

<sup>15</sup> 보라, 내가 너를 날카로운 타작기로, 날이 많은 새 타작기로 만들리니, 너는 산들을 타작하여 잘게 바수고, 언덕들을 지푸라기처럼 만들리라. <sup>16</sup> 내가 그것들을 까부르면 바람이 쓸어 가고, 폭풍이 그것들을 흠날려 버리리라. 그러나 너는 주님 안에서 기뻐 뛰놀고,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안에서 자랑스러워하리라.

<sup>17</sup> 가련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이 물을 찾지만,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탄다. 나 주님이 그들에게 응답하고, 나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리라. <sup>18</sup> 나는 벌거숭이산들 위에 강물이, 골짜기들 가운데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리라. 광야를 못으로, 메마른 땅을 수원으로 만들리라.

<sup>19</sup> 나는 광야에 향백나무와 아카시아, 도금양나무와 소나무를 갖다 놓고,

사막에 방백나무와 사철가막살나무와 젃나무를 함께 심으리라. <sup>20</sup> 이는 주님께서 그것을 손수 이루시고,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그것을 창조하셨음을 모든 이가 보아 알고, 살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## 화답송

시편 145(144), 1과 9.10-11.12-13ㄴ(◎ 8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,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저의 임금 하느님,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.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.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,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네. ◎

○ 주님,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,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.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,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. ◎

○ 당신의 위엄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 사람들에게 알리나이다. 당신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,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. ◎

## 복음 환호송

이사 45,8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하늘아,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. 구름아, 의로움을 뿌려라. 땅은 열려 구세주를 싹트게 하여라.

◎ 알렐루야.

**복 음** 〈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.〉

✠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1, 11-15

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.

<sup>11</sup> “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.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. <sup>12</sup>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 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.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. <sup>13</sup>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하였다. <sup>14</sup> 너희가 그것을

받아들이고자 한다면,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.

<sup>15</sup>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## 12월 10일 대림 제2주간 금요일

**제1독서** 〈아, 네가 내 계명들에 주의를 기울였다면.〉

▮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.

48, 17-19

<sup>17</sup>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, 너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.

“나는 주 너의 하느님, 너에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고, 네가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이다. <sup>18</sup> 아, 네가 내 계명들에 주의를 기울였다면, 너의 평화가 강물처럼, 너의 의로움이 바다 물결처럼 넘실거렸을 것을. <sup>19</sup> 네 후손들이 모래처럼, 네 몸의 소생들이 모래알처럼 많았을 것을. 그들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도, 없어지지도 않았을 것을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### 화답송

시편 1, 1-2. 3. 4와 6(◎ 요한 8, 12 참조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, 당신을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이다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- 행복하여라!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,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,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,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,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. ◎
-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, 제때에 열매 맺고, 잎이 아니 시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리라. ◎
-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, 바람에 흩날리는 검불 같아라. 의인의 길은 주님이 아시고,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리라. ◎

### 복음 환호송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이 오시니 마중 나가자. 주님은 평화의 임금입니다.

◎ 알렐루야.

**복 음** <그들은 요한의 말도, 사람의 아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.>

✠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1,16-19

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.

<sup>16</sup> “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?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. <sup>17</sup> ‘우리가 피리를 불어 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,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.’

<sup>18</sup>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, ‘저자는 마귀가 들렸다.’ 하고 말한다. <sup>19</sup>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, ‘보라,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,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.’ 하고 말한다.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론 일로 드러났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## 12월 11일 대림 제2주간 토요일

**제1독서** <엘리야가 다시 오리라.>

▮ 집회서의 말씀입니다.

48,1-4.9-11

그 무렵 <sup>1</sup> 엘리야 예언자가 불처럼 일어섰는데, 그의 말은 횃불처럼 타올랐다. <sup>2</sup> 엘리야는 그들에게 굶주림을 불러들였고, 자신의 열정으로 그들의 수를 감소시켰다.

<sup>3</sup>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하늘을 닫아 버리고, 세 번씩이나 불을 내려보냈다. <sup>4</sup> 엘리야여, 당신은 놀라운 일들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습니까? 누가 당신처럼 자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?

<sup>9</sup> 당신은 불 소용돌이 속에서, 불 마차에 태워 들어 올려졌습니다. <sup>10</sup> 당신은 정해진 때를 대비하여, 주님의 분노가 터지기 전에 그것을 진정시키고,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되돌리며, 야곱의 지파들을 재건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

<sup>11</sup> 당신을 본 사람들과 사랑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행복합니다.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## 화답송

시편 80(79), 27과 32, 15-16, 18-19(◎ 4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하느님,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.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. 저희가 구원되리이다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이스라엘의 목자시여, 귀를 기울이소서.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분,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, 당신 권능을 펼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. ◎

○ 만군의 하느님, 어서 돌아오소서.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,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.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,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. ◎

○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, 당신 위해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.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이다. 저희를 살려 주소서. 당신 이름을 부르리이다. ◎

## 복음 환호송

요한 15,5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이 말씀하신다.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.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, 나도 그 안에 머물러,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.

◎ 알렐루야.

**복 음** 〈엘리야는 이미 왔지만,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.〉

✠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7,10-13

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, <sup>10</sup> 제자들이 예수님께, “율법 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?” 하고 물었다.

<sup>11</sup>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. “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. <sup>12</sup>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,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.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.”

<sup>13</sup> 그제야 제자들은 그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

12월 12일  
대림 제3주일  
(자선 주일)

**제1독서** 〈하느님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.〉

□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.

35, 1-6ㄴ, 10

<sup>1</sup> 광야와 메마른 땅은 기뻐하여라. 사막은 즐거워하며 꽃을 피워라. <sup>2</sup> 수선화처럼 활짝 피고, 즐거워 뛰며 환성을 올려라. 레바논의 영광과, 카르멜과 사론의 영화가 그곳에 내려,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, 우리 하느님의 영화를 보리라.

<sup>3</sup> 너희는 맥 풀린 손에 힘을 붙어넣고, 꺾인 무릎에 힘을 돋우어라. <sup>4</sup>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. “굳세어져라, 두려워하지 마라. 보라, 너희의 하느님을! 복수가 들이닥친다, 하느님의 보복이!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.”

<sup>5</sup> 그때에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,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. <sup>6</sup> 그때에 다리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, 말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.

<sup>10</sup> 주님께서 해방시키신 이들만 그리로 돌아오리라.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에 들어서리니, 끝없는 즐거움이 그들 머리 위에 넘치고,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과 함께하여,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**화답송**

시편 146(145), 6ㄷ-7.8-9ㄱ.9ㄴ-10(◎ 이사 35,4 참조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,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,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,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.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. ◎

○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,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.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,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. ◎

○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,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.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. 시온아,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. ◎

**제2독서** 〈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.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.〉

□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.

5, 7-10

<sup>7</sup> 형제 여러분, 주님의 재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.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리는 농부를 보십시오. 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아 곡식이 익을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. <sup>8</sup>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.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. <sup>9</sup> 형제 여러분,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. 그래야 심판받지 않습니다. 보십시오,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.

<sup>10</sup> 형제 여러분,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끈기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## 복음 환호송

이사 61,1(루카 4,18 인용)

◎ 알렐루야.

○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.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,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.

◎ 알렐루야.

**복 음** <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?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?>

✠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1,2-11

그때에 <sup>2</sup> 요한이,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, <sup>3</sup> “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?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?” 하고 물었다.

<sup>4</sup>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. “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. <sup>5</sup> 눈먼 이들이 보고, 다리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,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, 귀머는 이들이 들으며,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,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. <sup>6</sup>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.”

<sup>7</sup> 그들이 떠나가자,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. “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?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? <sup>8</sup>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?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?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. <sup>9</sup>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? 예언자냐? 그렇다.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.

<sup>10</sup>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. ‘보라,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.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.’ <sup>11</sup>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.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

크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## 12월 13일 월요일 성녀 루치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

**제1독서** 〈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는다.〉

▮ 민수기의 말씀입니다.

24,2-7.15-17

그 무렵 <sup>2</sup> 발라암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자리 잡은 이스라엘을 보았다. 그때에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. <sup>3</sup> 그리하여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.

“브오르의 아들 발라암의 말이다.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, <sup>4</sup>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의 말이다.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, 눈은 뜨이게 된다.

<sup>5</sup> 야곱아, 너의 천막들이, 이스라엘아,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좋으냐! <sup>6</sup> 골짜기처럼 뻗어 있고, 강가의 동산 같구나.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나무 같고, 물가의 향백나무 같구나. <sup>7</sup> 그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, 그의 씨는 물을 흠뻑 먹으리라. 그들의 임금은 아각보다 뛰어나고,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떨치리라.”

<sup>15</sup> 그리고 나서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.

“브오르의 아들 발라암의 말이다.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, <sup>16</sup>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아는 이의 말이다.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, 눈은 뜨이게 된다.

<sup>17</sup> 나는 한 모습을 본다.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. 나는 그를 바라본다. 그러나 가깝지는 않다.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,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. 그는 모압의 관자놀이를, 셋의 모든 자손의 정수리를 부수리라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**화답송**

시편 25(24).4-5ㄴ.6과 7ㄴㄷ.8-9(◎ 4ㄴ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,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주님,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,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.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.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. ◎

- 주님,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. 주님, 당신의 자애에 따라,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.
- ◎ 주님,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.
-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,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.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,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. ◎

## 복음 환호송

시편 85(84),8

- ◎ 알렐루야.
- 주님,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이시고,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.
- ◎ 알렐루야.

**복 음** 〈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〉

✦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21, 23-27

<sup>23</sup>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,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. “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?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?”

<sup>24</sup>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. “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다.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,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 주겠다. <sup>25</sup>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? 하늘에서냐, 아니면 사람에게서냐?”

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. “‘하늘에서 왔다.’ 하면, ‘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?’ 하고 우리에게 말할 것이요. <sup>26</sup> 그렇다고 ‘사람에게서 왔다.’ 하자니 군중이 두렵소. 그들이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.” <sup>27</sup>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“모르겠소.” 하고 대답하였다.

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## 12월 14일 화요일 십자가의 성 요한 사제 학자 기념일

**제1독서** 〈구세주의 구원이 모든 가난한 사람에게 약속되리라.〉

▮ 스바니아 예언서의 말씀입니다.

3,1-2.9-13

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.

<sup>1</sup> “불행하여라, 반항하는 도성, 더럽혀진 도성, 억압을 일삼는 도성! <sup>2</sup> 말을 듣지 않고,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.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, 자기 하느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구나.

<sup>9</sup> 그때에 나는 민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리라. 그들이 모두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, 어깨를 나란히 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리라. <sup>10</sup> 에티오피아 강 너머에서 나의 숭배자들, 흩어진 이들이 선물을 가지고 나에게 오리라.

<sup>11</sup> 그날에는 네가 나를 거역하며 저지른 그 모든 행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리라. 그때에는 내가 네 가운데에서 거만스레 흥겨워하는 자들을 치워 버리리라. 그러면 네가 나의 거룩한 산에서 다시는 교만을 부리지 않으리라. <sup>12</sup> 나는 네 한가운데에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리니, 그들은 주님의 이름에 피신하리라.

<sup>13</sup>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,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, 그들 입에서는 사기 치는 혀를 보지 못하리라. 정녕 그들은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으며, 풀을 뜯고 몸을 누이리라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## 화답송

시편 34(33), 2-3. 6-7. 17-18. 19와 23(◎ 7ㄱ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 주셨네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,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.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,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. ◎

○ 주님을 바라보아라.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.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,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. ◎

○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,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.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,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 주셨네. ◎

○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하시고, 영혼이 짙앓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.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 주시니, 그분께 피신하는 이 모두 죄값을 벗으리라. ◎

## 복음 환호송

◎ 알렐루야.

○ 오소서, 주님. 지체하지 마소서. 당신 백성의 죄를 용서하소서.

◎ 알렐루야.

**복 음** 〈요한이 왔을 때, 죄인들은 그를 믿었다.〉

✱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21, 28-32

그때에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.

<sup>28</sup> “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?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, 맏아들에게 가서 ‘얘야,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.’ 하고 일렀다. <sup>29</sup> 그는 ‘싫습니다.’ 하고 대답하였지만,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. <sup>30</sup>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. 그는 ‘가겠습니다, 아버지!’ 하고 대답하였지만, 가지는 않았다. <sup>31</sup>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?” 그들이 “맏아들입니다.” 하고 대답하자,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

“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. <sup>32</sup>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,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,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.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## 12월 15일 대림 제3주간 수요일

**제1독서** 〈하늘아,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.〉

▮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.

45, 6ㄴ-8. 18. 21 ㄱ-25

<sup>6</sup> 내가 주님이요, 다른 이가 없다. <sup>7</sup> 나는 빛을 만드는 이요, 어둠을 창조하는 이다. 나는 행복을 주는 이요, 불행을 일으키는 이다. 나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룬다.

<sup>8</sup> 하늘아,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. 구름아, 의로움을 뿌려라.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, 의로움도 함께 싹트게 하여라. 나 주님이 이것을 창조하였다.

<sup>18</sup> 주님께서 말씀하신다. 하늘을 창조하신 분, 그분께서 하느님이시다. 땅을

빛으시고 땅을 만드신 분, 그분께서 그것을 굳게 세우셨다. 그분께서는 그것을 혼돈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, 살 수 있는 곳으로 빚어 만드셨다. 내가 주님이다. 다른 이가 없다.

<sup>21</sup> 나 주님이 아니냐? 나밖에는 다른 신이 아무도 없다. 의롭고 구원을 베푸는 하느님,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.

<sup>22</sup> 땅끝들아, 모두 나에게 돌아와 구원을 받아라. 나는 하느님, 다른 이가 없다.

<sup>23</sup>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. 내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으니, 그 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. 정녕 모두 나에게 무릎을 꿇고, 입으로 맹세하며 말하리라.

<sup>24</sup> “주님께만 의로움과 권능이 있다. 그분께 격분하는 자들은 모두 그분 앞에 와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. <sup>25</sup>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은 주님 안에서 승리와 영예를 얻으리라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## 화답송

시편 85(84), 9-11과 10.11-12.13-14(◎ 이사 45,8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하늘아,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. 구름아, 의로움을 뿌려라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. 당신 백성,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,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.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,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. ◎

○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,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.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,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. ◎

○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,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.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,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. ◎

## 복음 환호송

이사 40,9-10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,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. 보라, 주 하느님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.

◎ 알렐루야.

**복 음** <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.>

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7, 18ㄴ-23

그때에 <sup>18</sup> 요한은 자기 제자들 가운데에서 두 사람을 불러 <sup>19</sup> 주님께 보내며, “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?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?” 하고 여쭙게 하였다.

<sup>20</sup>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. “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보내어, ‘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?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?’ 하고 여쭙어 보라고 하셨습니다.”

<sup>21</sup>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질병과 병고와 악령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고, 또 많은 눈먼 이를 볼 수 있게 해 주셨다.

<sup>22</sup>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. “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. 눈먼 이들이 보고, 다리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,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, 귀머는 이들이 들으며,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,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. <sup>23</sup>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## 12월 16일 대림 제3주간 목요일

**제1독서** <주님께서서는 너를 소박맞은 아내인 양 다시 부르신다.>

□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.

54, 1-10

<sup>1</sup> 환성을 올려라,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아! 기뻐 소리쳐라, 즐거워하여라, 산고를 겪어 보지 못한 여인아! 버림받은 여인의 아들들이 혼인한 여인의 아들들보다 많을 것이다. 주님께서 말씀하신다. <sup>2</sup> 너의 천막 터를 넓혀라. 네 장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펼쳐라. 네 천막 줄을 길게 늘이고,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.

<sup>3</sup> 네가 좌우로 퍼져 나가고, 네 후손들이 못 나라를 차지하여 황폐한 성읍들에 자리 잡을 것이다. <sup>4</sup> 두려워하지 마라. 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. 수치스러워하지 마라. 네가 창피를 당하지 않으리라. 네 젊은 시절의 부끄러움을 잊고, 네 과부 시절의 치욕을 네가 다시는 회상하지 않으리라. <sup>5</sup> 너를 만드신 분이 너의 남편,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시다.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의 구원자, 그분께서는 온 땅의 하느님이라



불리신다.

<sup>6</sup> 정녕 주님께서는 너를, 소박맞아 마음 아파하는 아내인 양, 퇴박맞은 젊은 시절의 아내인 양 다시 부르신다. 너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. <sup>7</sup> “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, 크나큰 자비로 너를 다시 거두어들인다. <sup>8</sup> 분노가 북받쳐 내 얼굴을 잠시 너에게서 감추었지만, 영원한 자애로 너를 가없이 여긴다.” 네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.

<sup>9</sup> “이는 나에게 노아의 때와 같다. 노아의 물이 다시는 땅에 범람하지 않으리라고 내가 맹세하였듯이, 너에게 분노를 터뜨리지도, 너를 꾸짖지도 않겠다고 내가 맹세한다. <sup>10</sup> 산들이 밀려나고 언덕들이 흔들린다 하여도, 나의 자애는 너에게서 밀려나지 않고, 내 평화의 계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.” 너를 가없이 여기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## 화답송

시편 30(29), 2와 4.5-6.11-12과 13ㄴ(◎ 2ㄴ 참조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, 저를 구하셨으니,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주님,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.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,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. 주님,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,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. ◎

○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,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.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.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,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,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,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. ◎

○ “들으소서, 주님,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주님,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.”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, 주 하느님,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. ◎

## 복음 환호송

루카 3, 4.6

◎ 알렐루야.

○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.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.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.

◎ 알렐루야.

**복 음** 〈요한은 주님의 길을 닦는 사자이다.〉

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7, 24-30

<sup>24</sup>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돌아가자,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.

“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?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? <sup>25</sup>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?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?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다. <sup>26</sup>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? 예언자냐? 그렇다.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. <sup>27</sup>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. ‘보라,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.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.’

<sup>28</sup>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.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.

<sup>29</sup>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은 백성은 세리들까지 포함하여 모두 하느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. <sup>30</sup> 그러나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물리쳤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## 12월 17일 대림 제3주간 금요일

**제1독서** 〈왕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리라.〉

▮ 창세기의 말씀입니다.

49, 1-2. 8-10

그 무렵 <sup>1</sup>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하였다. “너희는 모여들 오너라. 뒷날 너희가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 주리라. <sup>2</sup> 야곱의 아들들아, 모여 와 들어라.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라.

<sup>8</sup> 너 유다야, 네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리라. 네 손은 원수들의 목을 잡고,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엎드리리라. <sup>9</sup> 유다는 어린 사자. 내 아들아, 너는 네가 잡은 짐승을 먹고 컸다. 유다가 사자처럼, 암사자처럼 웅크려 엎드리니, 누가 감히 그를 건드리랴? <sup>10</sup>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민족들이 그에게 순종할 때까지, 왕홀이 유다에게서, 지휘봉이 그의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라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## 화답송

시편 72(71), 1-2.3-4ㄴ.7-8.17(◎ 7ㄴㄷ 참조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의 시대에 정의가 꽃피게 하소서. 큰 평화가 영원히 꽃피게 하소서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하느님,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,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.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,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. ◎

○ 산들은 백성에게 평화를, 언덕들은 정의를 가져오게 하소서. 그가 가련한 백성의 권리를 보살피고, 불쌍한 이에게 도움을 베풀게 하소서. ◎

○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,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.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,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. ◎

○ 그의 이름 영원히 이어지며, 그의 이름 해처럼 솟아오르게 하소서.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, 그를 칭송하게 하소서. ◎

## 복음 환호송

◎ 알렐루야.

○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혜, 만물을 힘차고 아름답게 다스리시는 분, 어서 오시어, 저희에게 슬기를 가르치소서.

◎ 알렐루야.

## 복 음 〈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〉

✠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,1-17

<sup>1</sup>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.

<sup>2</sup> 아브라함은 이사악을 낳고, 이사악은 야곱을 낳았으며,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. <sup>3</sup>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,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,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. <sup>4</sup>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,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,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. <sup>5</sup>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,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벧을 낳았다. 오벧은 이사이를 낳고, <sup>6</sup>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.

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, <sup>7</sup>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, 르하브암은 아비아를 낳고, 아비아는 아삽을 낳았다. <sup>8</sup> 아삽은

여호사팻을 낳고, 여호사팻은 여호람을 낳았으며,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. <sup>9</sup>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,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,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. <sup>10</sup> 히즈키야는 므나쎄를 낳고, 므나쎄는 아몬을 낳았으며,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. <sup>11</sup>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.

<sup>12</sup>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, 스알티엘은 즈루빠벨을 낳았다. <sup>13</sup> 즈루빠벨은 아비훗을 낳고, 아비훗은 엘야קים을 낳았으며, 엘야קים은 아조르를 낳았다. <sup>14</sup>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, 차독은 아קים을 낳았으며, 아קים은 엘리웃을 낳았다. <sup>15</sup> 엘리웃은 엘아자르를 낳고,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,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. <sup>16</sup>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,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.

<sup>17</sup>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십사 대이고,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십사 대이며,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십사 대이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## 12월 18일 대림 제3주간 토요일

**제1독서** <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짝을 돌아나게 하리라.>

▣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.

23,5-8

<sup>5</sup> 보라, 그날이 온다! 주님의 말씀이다.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짝을 돌아나게 하리라. 그 짝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며, 세상에 공정과 정의를 이루리라. <sup>6</sup> 그의 시대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,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리라.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‘주님은 우리의 정의’라고 부르리라.

<sup>7</sup> 그러므로 이제 그날이 온다. 주님의 말씀이다.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“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신, 살아 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.” 하지 않고, <sup>8</sup> 그 대신 “이스라엘 집안의 후손들을 북쪽 땅에서, 그리고 당신께서 쫓아 보내셨던 모든 나라에서 데리고 올라오신, 살아 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.” 할 것이다. 그때에 그들은 자기 고향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## 화답송

시편 72(71), 1-2. 12-13. 18-19(◎ 7ㄴㄷ 참조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의 시대에 정의가 꽃피게 하소서. 큰 평화가 영원히 꽃피게 하소서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하느님,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,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.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,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. ◎

○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,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. 약한 이,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,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. ◎

○ 주 하느님,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찬미받으시리라. 그분 홀로 기적들을 일으키신다. 영광스러운 그 이름 영원히 찬미받으시리라. 그 영광 온 누리에 가득하리라. ◎

## 복음 환호송

◎ 알렐루야.

○ 이스라엘 집안의 영도자,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법을 주셨으니, 당신 팔을 펼치시어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.

◎ 알렐루야.

**복 음** 〈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리라.〉

✠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, 18-24

<sup>18</sup>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.

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,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.

<sup>19</sup>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,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,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.

<sup>20</sup>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,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. “다윗의 자손 요셉아,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.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.” <sup>21</sup>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,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.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

구원하실 것이다.”

<sup>22</sup>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. 곧, <sup>23</sup> “보아라,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,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.” 하신 말씀이다. 임마누엘은 번역하면, ‘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.’는 뜻이다.

<sup>24</sup>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.  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## 12월 19일 대림 제4주일

**제1독서** <젊은 여인이 잉태하리라.>

▮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.

7, 10-14

그 무렵 <sup>10</sup> 주님께서 아하즈에게 이르셨다. <sup>11</sup> “너는 주 너의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. 저 저승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,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것이나 청하여라.”

<sup>12</sup> 아하즈가 대답하였다. “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.”

<sup>13</sup>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였다. “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!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,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? <sup>14</sup>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. 보십시오,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,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### 화답송

시편 24(23), 1-2. 3-4나. 5-6(◎ 7나과 10나 참조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시니,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.

<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>

○ 주님의 것이라네,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,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.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, 강 위에 굳히셨네. ◎

○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?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?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,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 이라네. ◎

○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.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. 이들이 야곱이라네. 그분을 찾는 세대,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. ◎

**제2독서** <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이요,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.>

▮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.

1, 1-7

<sup>1</sup>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,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. <sup>2</sup> 이 복음은 하느님께서

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것으로, <sup>3</sup> 당신 아드님에 관한 말씀입니다.

그분께서는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, <sup>4</sup>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, 힘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 <sup>5</sup>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.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. <sup>6</sup>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.

<sup>7</sup>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서 하느님께 사랑받는 로마의 모든 신자에게 인사합니다.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## 복음 환호송

마태 1,23

◎ 알렐루야.

○ 보아라,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,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.

◎ 알렐루야.

**복 음** <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리라.>

✦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,18-24

<sup>18</sup>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.

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,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.

<sup>19</sup>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,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,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.

<sup>20</sup>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,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. “다윗의 자손 요셉아,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.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. <sup>21</sup>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,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.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.”

<sup>22</sup>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



일어났다. 곧, <sup>23</sup> “보아라,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,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.” 하신 말씀이다. 임마누엘은 번역하면, ‘하느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.’는 뜻이다.

<sup>24</sup>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.  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## 12월 20일 대림 제4주간 월요일

**제1독서** <젊은 여인이 잉태하리라.>

□□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.

7,10-14

그 무렵 <sup>10</sup> 주님께서 아하즈에게 이르셨다. <sup>11</sup> “너는 주 너의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. 저 저승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,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것이나 청하여라.”

<sup>12</sup> 아하즈가 대답하였다. “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.”

<sup>13</sup>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였다. “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!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,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? <sup>14</sup>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. 보십시오,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,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**화답송**

시편 24(23),1-2.3-4ㄴ.5-6(◎ 7ㄷ과 10ㄷ 참조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시니,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.

<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>

○ 주님의 것이라네,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,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.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, 강 위에 굳히셨네. ◎

○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?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?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,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 이라네. ◎

-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.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. 이들이 야곱이라네. 그분을 찾는 세대,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.
- ◎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시니,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.

## 복음 환호송

- ◎ 알렐루야.
- 다윗의 열쇠, 영원한 나라의 문을 여시는 분, 어서 오시어,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이들을 이끌어 내소서.
- ◎ 알렐루야.

**복 음** <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다.>

✠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1, 26-38

그때에 <sup>26</sup> 하느님께서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, <sup>27</sup>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.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.

<sup>28</sup>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. “은총이 가득한 이여, 기뻐하여라.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.” <sup>29</sup>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.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.

<sup>30</sup>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. “두려워하지 마라, 마리아야.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. <sup>31</sup> 보라,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,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. <sup>32</sup>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,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.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, <sup>33</sup>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,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.”

<sup>34</sup> 마리아가 천사에게, “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,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?” 하고 말하자, <sup>35</sup>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.

“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,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.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,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. <sup>36</sup>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.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.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. <sup>37</sup>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.”

<sup>38</sup> 마리아가 말하였다. “보십시오,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.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”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## 12월 21일 대림 제4주간 화요일

**제1독서** 〈보श्य, 내 연인이 언덕을 뛰어넘어 오잖아요.〉

▮ 아가의 말씀입니다.

2,8-14〈또는 스바 3,14-18〉

<sup>8</sup> 내 연인의 소리! 보श्य, 그이가 오잖아요. 산을 뛰어오르고, 언덕을 뛰어넘어 오잖아요. <sup>9</sup> 나의 연인은 노루나 젊은 사슴 같습니다. 보श्य, 그이가 우리 집 담장 앞에 서서, 창틈으로 기웃거리고 창살 틈으로 들여다본답니다.

<sup>10</sup> 내 연인은 나에게 속삭이며 말했지요. “나의 애인이여, 일어나오. 나의 아름다운 여인이여, 이리 와 주오. <sup>11</sup> 자, 이제 겨울은 지나고, 장마는 겼혔다오. <sup>12</sup> 땅에는 꽃이 모습을 드러내고, 노래의 계절이 다가왔다오. 우리 땅에서는 뗏비둘기 소리가 들려온다오. <sup>13</sup> 무화과나무는 이른 열매를 맺어 가고, 포도나무 꽃송이들은 향기를 내뿜는다오.

나의 애인이여, 일어나오. 나의 아름다운 여인이여, 이리 와 주오. <sup>14</sup> 바위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, 벼랑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! 그대의 모습을 보게 해 주오. 그대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오. 그대의 목소리는 달콤하고, 그대의 모습은 어여쁘다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### 화답송

시편 33(32), 2-3. 11-12. 20-21(◎ 1ㄱ과 3ㄱ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의인들아,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.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노래하여라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비파 타며 주님을 찬송하고, 열 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러라. 주님께 노래하여라, 새로운 노래를. 고운 가락을 내며 환성 올려라. ◎

○ 주님의 뜻은 영원히 이어지고, 그 마음속 계획은 대대로 이어진다. 행복하여라,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,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! ◎

- 주님은 우리 도움, 우리 방패,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. 그분 안에서 우리 마음 기뻐하고, 거룩하신 그 이름 우리가 신뢰하네.
- ◎ 의인들아,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.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노래하여라.

## 복음 환호송

- ◎ 알렐루야.
- 임마누엘, 법을 세우신 저희 임금님. 어서 오시어, 저희를 구원하소서, 주 하느님.
- ◎ 알렐루야.

**복 음** <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, 어찌 된 일입니까?>

✠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1, 39-45

<sup>39</sup>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,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. <sup>40</sup>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,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.

<sup>41</sup>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,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.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<sup>42</sup> 큰 소리로 외쳤다.

“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,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. <sup>43</sup>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, 어찌 된 일입니까? <sup>44</sup> 보십시오,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,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.

<sup>45</sup> 행복하십니다,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!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## 12월 22일 대림 제4주간 수요일

**제1독서** <한나가 사무엘의 탄생을 감사드리다.>

▮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. 1, 24-28

그 무렵 <sup>24</sup> 사무엘이 젖을 떼자, 한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다. 그는 삼 년 된 황소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파와 포도주를 채운 가죽 부대 하나를 싣고,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갔다. 아이는 아직 나이가 어렸다. <sup>25</sup> 사람들은 황소를 잡은 뒤,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.

<sup>26</sup>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. “나리! 나리께서 살아 계시는 것이 틀림없듯이, 제가 여기 나리 앞에 서서 주님께 기도하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. <sup>27</sup> 제가 기도한 것은 이 아이 때문입니다. 주님께서는 제가 드린 청을 들어주셨습니다. <sup>28</sup> 그래서 저도 아이를 주님께 바치기로 하였습니다. 이 아이는 평생을 주님께 바친 아이입니다.” 그런 다음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## 화답송

1사무 2,1.4-5.6-7.8 가나안 (◎ 1가 참조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저의 구원자 주님 안에서 제 마음 기뻐 뛰나이다.

〈이어지는 찬가는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- 주님 안에서 제 마음이 기뻐 뛰고, 주님 안에서 제 얼굴을 높이 드나이다.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기에, 제 입은 원수들을 비웃나이다. ◎
- 힘센 용사들의 활은 부러지고, 비틀거리던 이들은 힘차게 일어선다. 배부른 자들은 양식을 얻으려 품을 팔고, 배고픈 이들은 더는 굶주리지 않는다. 아이 못 낳던 여자는 일곱을 낳고, 아들 많은 여자는 홀로 시들어 간다. ◎
- 주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며, 저승으로 내리기도 저승에서 올리기도 하신다. 주님은 가난하게도 가멸게도 하시며,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신다. ◎
- 주님은 비천한 이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시고, 가난한 이를 잣더미에서 들어 높이시어, 존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히시며,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. ◎

## 복음 환호송

◎ 알렐루야.

- 민족들의 임금님, 교회의 모퉁잇돌이신 분, 어서 오시어, 흠으로 빛으신 사람을 구원하소서.

◎ 알렐루야.

**복 음** 〈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다.〉

✠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,46-56

그때에 <sup>46</sup> 마리아가 말하였다.

“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, <sup>47</sup>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, <sup>48</sup>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.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, <sup>49</sup>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.

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, <sup>50</sup>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.

<sup>51</sup>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펼치시어,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습니다. <sup>52</sup>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,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, <sup>53</sup>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,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.

<sup>54</sup>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,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, <sup>55</sup>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,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.”

<sup>56</sup>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.  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## 12월 23일 대림 제4주간 목요일

**제1독서** 〈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,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.〉

▣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.

3, 1-4. 23-24

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.

<sup>1</sup> “보라,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,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. 너희가 찾던 주님, 그가 홀연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.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, 보라, 그가 온다. —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. — <sup>2</sup>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어 내며,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?

그는 제련사의 불 같고, 염색공의 잿물 같으리라. <sup>3</sup> 그는 은 제련사와 정련사처럼 앉아,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,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련하여, 주님에게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리라. <sup>4</sup>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, 지난날처럼 주님 마음에 들리라.

<sup>23</sup> 보라,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,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

예언자를 보내리라. <sup>24</sup>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,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리라. 그래야 내가 와서 이 땅을 파멸로 내리치지 않으리라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## 화답송

시편 25(24).4-5ㄴ.8-9.10과 14(◎ 루카 21,28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.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- 주님,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,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.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.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. ◎
-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,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.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,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. ◎
- 주님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, 주님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라네.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와 사귀시고, 당신의 계약 그들에게 알려 주신다. ◎

## 복음 환호송

◎ 알렐루야.

- 민족들의 임금님, 교회의 모퉁잇돌이신 분, 어서 오시어, 흠으로 빛으신 사람을 구원하소서.

◎ 알렐루야.

## 복 음 〈세례자 요한의 탄생〉

✠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,57-66

<sup>57</sup>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. <sup>58</sup>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,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.

<sup>59</sup> 여드레째 되는 날,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,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. <sup>60</sup>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“안 됩니다.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.” 하고 말하였다.

<sup>61</sup> 그들은 “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.” 하며, <sup>62</sup>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.

<sup>63</sup> 즈카르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, ‘그의 이름은 요한’ 이라고 썼다.

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. <sup>64</sup> 그때에 즈카르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, 하느님을 찬미하였다.

<sup>65</sup>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.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. <sup>66</sup>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, “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?” 하고 말하였다.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## 12월 24일 대림 제4주간 금요일

### 아침 미사

**제1독서** <다윗의 나라는 주님 앞에서 영원히 굳건할 것이다.>

▣ 사무엘기 하권의 말씀입니다.

7.1-5.8ㄷ-12.14ㄱ.16

<sup>1</sup> 다윗 임금이 자기 궁에 자리 잡고, 주님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 주셨을 때이다. <sup>2</sup> 임금이 나탄 예언자에게 말하였다. “보시오, 나는 향백나무 궁에 사는데, 하느님의 궤는 천막에 머무르고 있소.”

<sup>3</sup> 나탄이 임금에게 말하였다. “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, 가서서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.”

<sup>4</sup> 그런데 그날 밤, 주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. <sup>5</sup> “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. ‘주님이 이렇게 말한다.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다는 말이냐?’

<sup>8</sup> 나는 양 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,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. <sup>9</sup> 또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,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쳤다.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.

<sup>10</sup>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곳을 정하고,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.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, 다시는 전처럼,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. <sup>11</sup> 곧,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판관을 임명하던 때부터 해 온 것처럼, 나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 주겠다. 더 나아가,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.



<sup>12</sup>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, 네 몸에서 나와 네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,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. <sup>14</sup>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,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.

<sup>16</sup> 너의 집안과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, 네 왕좌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.’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## 화답송

시편 89(88).2-3.4-5.27과 29(◎ 2ㄱ 참조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,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.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. 제가 아뢰나이다. “주님은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, 진실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.” ◎

○ “나는 내가 뽑은 이와 계약을 맺고,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노라. 영원토록 네 후손을 굳건히 하고, 대대로 이어 갈 네 왕좌를 세우노라.” ◎

○ “그는 나를 부르리라. ‘당신은 저의 아버지, 저의 하느님, 제 구원의 바위.’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애를 베풀리니, 그와 맺은 내 계약 변함이 없으리라.” ◎

## 복음 환호송

◎ 알렐루야.

○ 정의의 태양, 떠오르는 새벽, 영원한 빛이신 주님, 어서 오시어, 어둠 속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이들을 비추소서.

◎ 알렐루야.

**복 음** 〈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게 하셨다.〉

✠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,67-79

그때에 <sup>67</sup> 요한의 아버지 즈카르야는 성령으로 가득 차 이렇게 예언하였다.

<sup>68</sup> “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서는 찬미받으소서.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찾아와 속량하시고, <sup>69</sup> 당신 종 다윗 집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힘센 구원자를 일으키셨습니다. <sup>70</sup>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로부터 말씀하신

대로, <sup>71</sup> 우리 원수들에게서,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. <sup>72</sup> 그분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,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셨습니다. <sup>73</sup> 이 계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, <sup>74</sup> 원수들 손에서 구원된 우리가 두려움 없이 <sup>75</sup> 한평생 당신 앞에서, 거룩하고 의롭게 당신을 섬기도록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.

<sup>76</sup> 아기야,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리고, 주님을 앞서 가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니, <sup>77</sup> 죄를 용서받아 구원됨을 주님의 백성에게 깨우쳐 주려는 것이다. <sup>78</sup> 우리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시어, <sup>79</sup>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이들을 비추시고,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## 12월 24일 금요일 예수 성탄 대축일 전야 저녁 미사

〈이 미사는 12월 24일 저녁, 성탄 대축일 제1 저녁 기도 앞이나 뒤에 드린다.〉

**제1독서** 〈주님께서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.〉

▣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.

62,1-5

<sup>1</sup> 시온 때문에 나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고, 예루살렘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, 그의 의로움이 빛처럼 드러나고, 그의 구원이 햇불처럼 타오를 때까지.

<sup>2</sup> 그러면 민족들이 너의 의로움을, 임금들이 너의 영광을 보리라. 너는 주님께서 친히 지어 주실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리라. <sup>3</sup>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 있는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, 너의 하느님 손바닥에 놓여 있는 왕관이 되리라.

<sup>4</sup> 다시는 네가 ‘소박맞은 여인’이라, 다시는 네 땅이 ‘버림받은 여인’이라 일컬어지지 않으리라. 오히려 너는 ‘내 마음에 드는 여인’이라, 너의 땅은 ‘혼인한 여인’이라 불리리니, 주님께서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, 네 땅을 아내로 맞아들이실 것이기 때문이다.

<sup>5</sup> 정녕 총각이 처녀와 혼인하듯,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혼인하고,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듯, 너의 하느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**화답송**

시편 89(88).4-5.16-17.27과 29(◎ 2ㄱ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나는 내가 뽑은 이와 계약을 맺고,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노라.

“영원토록 네 후손을 굳건히 하고, 대대로 이어 갈 네 왕좌를 세우노라.” ◎

○ 행복하여라, 축제의 기쁨을 아는 백성! 주님, 그들은 당신 얼굴 그 빛 속을 걷나이다. 그들은 날마다 당신 이름으로 기뻐하고, 당신 정의로 힘차게 일어서나이다. ◎

○ “그는 나를 부르리라. ‘당신은 저의 아버지, 저의 하느님, 제 구원의 바위.’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애를 베풀리니, 그와 맺은 내 계약 변함이 없으리라.” ◎

## 제2독서 <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바오로의 증언>

▮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.

13, 16-17, 22-25

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 간 바오로는 회당에서 <sup>16</sup> 일어나 조용히 하라고 손짓한 다음, 이렇게 말하였다.

“이스라엘인 여러분,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, 내 말을 들어 보십시오. <sup>17</sup>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시고,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살이할 때에 그들을 큰 백성으로 키워 주셨으며,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.

<sup>22</sup> 그리고 나서, 그들에게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. 그에 대해서는, ‘내가 이사이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,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, 나의 뜻을 모두 실천할 것이다.’ 하고 증언해 주셨습니다.

<sup>23</sup>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, 하느님께서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. <sup>24</sup> 이분께서 오시기 전에, 요한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습니다.

<sup>25</sup> 요한은 사명을 다 마칠 무렵 이렇게 말하였습니다. ‘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? 나는 그분이 아니다. 그분께서는 내 뒤에 오시는데,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리기에요도 합당하지 않다.’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## 복음 환호송

◎ 알렐루야.

○ 내일 세상의 죄악이 사라지고, 구세주 우리를 다스리시리라.

◎ 알렐루야.

## 복 음 <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>

✠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, 1-25<또는 1, 18-25>

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< > 부분을 생략한다.

<<sup>1</sup>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.

<sup>2</sup> 아브라함은 이사악을 낳고, 이사악은 야곱을 낳았으며,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. <sup>3</sup>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,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,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. <sup>4</sup>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,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,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. <sup>5</sup>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,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벧을 낳았다. 오벧은

이사이를 낳고, <sup>6</sup>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.

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, <sup>7</sup>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,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,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. <sup>8</sup> 아삽은 여호사팻을 낳고, 여호사팻은 여호람을 낳았으며,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. <sup>9</sup>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,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,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. <sup>10</sup> 히즈키야는 므나쎄를 낳고, 므나쎄는 아몬을 낳았으며,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. <sup>11</sup>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.

<sup>12</sup>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, 스알티엘은 즈루빠벨을 낳았다. <sup>13</sup> 즈루빠벨은 아비훗을 낳고, 아비훗은 엘야킴을 낳았으며,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. <sup>14</sup>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,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,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. <sup>15</sup> 엘리웃은 엘아자르를 낳고,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,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. <sup>16</sup>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,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.

<sup>17</sup>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십사 대이고,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십사 대이며,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십사 대이다.》

<sup>18</sup>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.

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,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.

<sup>19</sup>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,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,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.

<sup>20</sup>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,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.

“다윗의 자손 요셉아,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. 그 몸에서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. <sup>21</sup>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,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.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.”

<sup>22</sup>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. 곧, <sup>23</sup> “보아라,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,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.” 하신 말씀이다. 임마누엘은 번역하면, ‘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.’는 뜻이다.

<sup>24</sup>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. <sup>25</sup>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았다.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

예수라고 하였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## 12월 25일 토요일 예수 성탄 대축일 밤 미사

〈예수 성탄 대축일에 모든 사제는 세 대의 미사를 거행하거나 공동 집전할 수 있다. 다만, 제때에 그 미사를 드려야 한다.〉

**제1독서** 〈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.〉

▮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.

9,1-6

<sup>1</sup>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.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. <sup>2</sup>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이 하시고,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.

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, 수확할 때 기뻐하듯,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.

<sup>3</sup>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, 어깨에 멘 장대와, 부역 감독관의 몽둥이를, 미디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.

<sup>4</sup> 땅을 흔들며 저벽거리는 군화도, 피 속에 뒹군 군복도 모조리 화염에 싸여 불꽃의 먹이가 됩니다.

<sup>5</sup>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,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.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,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, 용맹한 하느님, 영원한 아버지,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.

<sup>6</sup>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,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.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,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켜 가리이다.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이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**화답송**

시편 96(95),1-2ㄱ,2ㄴ-3,11-12,13(◎ 루카 2,11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오늘 우리 구원자, 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주님께 노래하여라, 새로운 노래를. 주님께 노래하여라, 온 세상아.

주님께 노래하여라, 그 이름 찬미하여라. ◎

- 나날이 선포하여라, 그분의 구원을. 전하여라,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,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. ◎
-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.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.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,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. ◎
- 그분이 오신다.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.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.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,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. ◎

**제2독서** 〈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.〉

▮ 사도 바오로의 티토서 말씀입니다. 2,11-14

사랑하는 그대여, <sup>11</sup> 과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. <sup>12</sup> 이 은총이 우리를 교육하여, 불경함과 속된 욕망을 버리고 현세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 줍니다.

<sup>13</sup>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, 우리의 위대하신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 줍니다. <sup>14</sup>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어,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어, 선행에 열성을 기울이는 당신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**복음 환호송**

루카 2,10-11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니,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.

◎ 알렐루야.

**복 음** 〈오늘 너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.〉

✠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2,1-14

<sup>1</sup>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,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. <sup>2</sup>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. <sup>3</sup>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.

<sup>4</sup> 요셉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,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.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. <sup>5</sup>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,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.

<sup>6</sup>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, <sup>7</sup> 첫아들을 낳았다.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었다.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.

<sup>8</sup>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. <sup>9</sup>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,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.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. <sup>10</sup>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. “두려워하지 마라. 보라,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. <sup>11</sup>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, 주 그리스도이시다. <sup>12</sup>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,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.” <sup>13</sup> 그때에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.

<sup>14</sup> “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,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!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## 12월 25일 토요일 예수 성탄 대축일 새벽 미사

**제1독서** 〈보라, 너의 구원이 다가온다.〉

▮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.

62, 11-12

<sup>11</sup> 보라,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셨다.

딸 시온에게 말하여라. “보라, 너의 구원이 다가온다. 보라,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,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서서 온다.”

<sup>12</sup> 사람들이 그들을 ‘거룩한 백성’, ‘주님의 구원을 받은 이들’이라 부르리라. 그리고 너는 ‘그리워 찾는 도성’, ‘버림받지 않은 도성’이라 불리리라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

## 화답송

시편 97(96).1과 6.11-12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우리 위해 주님이 태어나셨으니, 오늘 우리 위에 빛이 비치리라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- 주님은 임금이다. 땅은 즐거워하고 수많은 섬들도 기뻐하여라. 하늘은 그분 의로움을 널리 알리고, 만백성 그분 영광을 우리러보네. ◎
- 의인에게는 빛이 내리고, 마음 바른 이에게는 기쁨이 쏟아진다. 의인들아,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.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. ◎

**제2독서** 〈하느님께서는 당신 자비에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.〉

▮ 사도 바오로의 티토서 말씀입니다. 3,4-7

사랑하는 그대여, <sup>4</sup> 우리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호의와 인간애가 드러난 그때, <sup>5</sup>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.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비에 따라,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도록 물로 씻어 구원하신 것입니다. <sup>6</sup> 이 성령을 하느님께서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습니다. <sup>7</sup>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어,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## 복음 환호송

루카 2,14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, 땅에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!

◎ 알렐루야.

**복 음** 〈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다.〉

✠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2,15-20

<sup>15</sup>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가자,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. “베들레헴으로 가서,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그 일,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.” <sup>16</sup> 그리고 서둘러 가서,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. <sup>17</sup>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,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 주었다.

<sup>18</sup>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. <sup>19</sup>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.

<sup>20</sup>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## 12월 25일 토요일 예수 성탄 대축일 낮 미사

**제1독서** 〈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.〉

□□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.

52, 7-10

<sup>7</sup> 얼마나 아름다운가,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!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, 구원을 선포하는구나. “너의 하느님은 임금님이시다.” 하고 시온에게 말하는구나. <sup>8</sup> 들어 보아라. 너의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인다. 다 함께 환성을 올린다.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심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본다.

<sup>9</sup> 예루살렘의 폐허들아, 다 함께 기뻐하며 환성을 올려라.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,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. <sup>10</sup>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한 팔을 걷어붙이시니,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**화답송**

시편 98(97), 1. 2-3 나. 3 나-4. 5-6 (◎ 3 나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주님께 노래하여라, 새로운 노래를.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. 그분의 오른손이,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. ◎

○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.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.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. ◎

○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. 주님께 환성

- 올려라, 온 세상아.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, 찬미 노래 불러라. ◎
-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.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. 쇠 나팔, 뿔 나팔 소리에 맞춰,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. ◎

**제2독서** 〈하느님께서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.〉

▮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. 1,1-6

<sup>1</sup>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, <sup>2</sup>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하느님께서서는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,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. <sup>3</sup> 아드님은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, 하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,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. 그분께서 죄를 깨끗이 없애신 다음,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. <sup>4</sup> 그분께서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으시어, 그만큼 그들보다 위대하게 되셨습니다.

<sup>5</sup> 하느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, “너는 내 아들.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.”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? 또 “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,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.”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? <sup>6</sup> 또 만아드님을 저세상에 데리고 들어가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“하느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## 복음 환호송

◎ 알렐루야.

○ 거룩한 날이 우리를 비추네. 민족들아,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. 큰 빛이 땅 위에 내렸네.

◎ 알렐루야.

**복 음** 〈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.〉

✠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의 시작입니다. 1,1-18〈또는 1,1-5.9-14〉

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〈 〉 부분을 생략한다.

<sup>1</sup>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.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, 말씀은 하느님이셨다.

<sup>2</sup>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.

<sup>3</sup>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,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. <sup>4</sup>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,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. <sup>5</sup>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,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.

〈<sup>6</sup>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,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. <sup>7</sup> 그는 증언하러 왔다. 빛을 증언하여,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. <sup>8</sup>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.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.〉

<sup>9</sup>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. <sup>10</sup>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,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,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. <sup>11</sup>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,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.

<sup>12</sup>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,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,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. <sup>13</sup> 이들은 혈통이나 육육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,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.

<sup>14</sup>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.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.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.

〈<sup>15</sup>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. “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. ‘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,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.’”

<sup>16</sup>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. <sup>17</sup>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,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.

<sup>18</sup>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.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,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 주셨다.〉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12월 26일 주일  
예수, 마리아, 요셉의 성가정 축일  
(가정 성화 주간)

**제1독서** 〈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버지를 공경한다.〉

□ 집회서의 말씀입니다.

3,2-6.12-14

<sup>2</sup>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,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. <sup>3</sup>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. <sup>4</sup>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.

<sup>5</sup>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,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. <sup>6</sup>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,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.

<sup>12</sup> 애야, 네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,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. <sup>13</sup>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,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네 힘을 다하여라. <sup>14</sup>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히지 않으니, 네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**화답송**

시편 128(127),1-2.3.4-5(◎ 1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행복하여라,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,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!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행복하여라,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,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! 너는 네 손으로 벌어들이니, 행복하여라, 너는 복을 받으리라. ◎

○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,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. ◎

○ 보라,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.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.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. ◎

**제2독서** 〈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생활〉

□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.

3,12-21

형제 여러분, <sup>12</sup>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, 거룩한 사람, 사랑받는 사람답게

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. <sup>13</sup>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, 서로 참아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.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,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. <sup>14</sup>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.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입니다.

<sup>15</sup>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.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.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.

<sup>16</sup>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.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.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 드리십시오. <sup>17</sup> 말이든 행동이든, 무엇이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,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.

<sup>18</sup> 아내 여러분,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.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. <sup>19</sup> 남편 여러분, 아내를 사랑하십시오.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. <sup>20</sup> 자녀 여러분,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.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. <sup>21</sup> 아버지 여러분,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. 그러다가 그들의 기를 꺾고 맙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## 복음 환호송

콜로 3,15ㄱ,16ㄱ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.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.

◎ 알렐루야.

**복 음** 〈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.〉

✠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2,13-15.19-23

<sup>13</sup> 박사들이 돌아간 뒤,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. “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, 내가 너에게 일러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.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 버리려고 한다.”

<sup>14</sup>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, <sup>15</sup>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.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, “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.”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.

<sup>19</sup> 헤로데가 죽자,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

말하였다. <sup>20</sup> “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.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.” <sup>21</sup>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.

<sup>22</sup>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,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. 그러다가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래아 지방으로 떠나, <sup>23</sup>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.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“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.”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## 12월 27일 월요일 성 요한 사도 복음사가 축일

**제1독서** <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.>

□□ 요한 1서의 시작입니다.

1,1-4

사랑하는 여러분, <sup>1</sup> 처음부터 있어 온 것, 우리가 들은 것, 우리 눈으로 본 것,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 본 것,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. <sup>2</sup>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. 우리가 그 생명을 보고 증언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.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. <sup>3</sup>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.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.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,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.

<sup>4</sup>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이 글을 씁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### 화답송

시편 97(96),1-2.5-6.11-12(◎ 12ㄱ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의인들아,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.

<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>

○ 주님은 임금입니다. 땅은 즐거워하고, 수많은 섬들도 기뻐하여라. 흰 구름, 먹구름, 그분을 둘러싸고, 정의와 공정은 그분 어좌의 바탕이라네. ◎

- 주님 앞에서 산들이 밀초처럼 녹아내리네. 주님 앞에서 온 땅이 녹아내리네. 하늘은 그분 의로움을 널리 알리고, 만백성 그분 영광을 우러러보네.
- ◎ 의인들아,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.
- 의인에게는 빛이 내리고, 마음 바른 이에게는 기쁨이 쏟아진다. 의인들아,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.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. ◎

## 복음 환호송

- ◎ 알렐루야.
- 찬미하나이다, 주 하느님. 주님을 찬양하나이다. 영광에 빛나는 사도들의 모임이 주님을 찬미하나이다.
- ◎ 알렐루야.

**복 음** <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.>

✠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20,2-8

주간 첫날, 마리아 막달레나는 <sup>2</sup>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. “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까.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.”

<sup>3</sup>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. <sup>4</sup>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,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. <sup>5</sup>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,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. <sup>6</sup>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. <sup>7</sup> 예수님의 얼굴을 찼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, 따로 한곳에 개켜져 있었다.

<sup>8</sup>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. 그리고 보고 믿었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## 12월 28일 화요일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

**제1독서** <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줍니다.>

▮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. 1,5-2,2

사랑하는 여러분, <sup>5</sup>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



말씀은 이것입니다. 곧, 하느님은 빛이시며,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. <sup>6</sup> 만일 우리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,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,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. <sup>7</sup> 그러나 그분께서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서 살아가면,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,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줍니다.

<sup>8</sup>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,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,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. <sup>9</sup>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,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,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. <sup>10</sup>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,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,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.

<sup>2.1</sup> 나의 자녀 여러분,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.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. 곧,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 <sup>2</sup>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.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## 화답송

시편 124(123).2-3.4-5.7ㄷ-8(◎ 7ㄴ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사냥꾼의 그물에서 우리는 새처럼 벗어났네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- 사람들이 우리에게 맞서 일어났을 때,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던들, 우리를 거슬러 저들의 분노가 타올랐을 때, 우리를 산 채로 삼켜 버렸으리라. ◎
- 물살이 우리를 덮치고 급류가 우리를 휩쓸었으리라. 거품을 뿜어내는 물살이 우리를 휩쓸었으리라. ◎
-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벗어났네. 주님 이름에 우리 구원이 있네.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네. ◎

## 복음 환호송

◎ 알렐루야.

○ 찬미하나이다, 주 하느님. 주님을 찬양하나이다. 눈부신 순교자들의 무리가 주님을 찬미하나이다.

◎ 알렐루야.

**복 음** <헤로데는 베들레헬에 사는 사내아이들을 모조리 죽여 버렸다.>

✠ 마태오가 전한 기록한 복음입니다. 2,13-18

<sup>13</sup> 박사들이 돌아간 뒤,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. “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, 내가 너에게 일러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.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 버리려고 한다.”

<sup>14</sup>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, <sup>15</sup>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.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, “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.”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.

<sup>16</sup>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.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,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, 베들레헬과 그 온 일대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을 모조리 죽여 버렸다.

<sup>17</sup>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. <sup>18</sup> “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.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 소리.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. 자식들이 없으니, 위로도 마다한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## 12월 29일 수요일 성탄 팔일 축제 내 제5일

**제1독서** <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.>

□□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. 2,3-11

사랑하는 여러분, <sup>3</sup>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,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. <sup>4</sup> “나는 그분을 안다.”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고,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. <sup>5</sup>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,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됩니다.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. <sup>6</sup> 그분 안에 머무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.

<sup>7</sup> 사랑하는 여러분,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, 여러분이 처음부터 지녀 온 옛 계명입니다.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. <sup>8</sup> 그러면서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입니다. 그것은 그리스도께도, 또 여러분에게도 참된 사실입니다.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.

<sup>9</sup>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. <sup>10</sup>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머무르고, 그에게는 걸림돌이 없습니다. <sup>11</sup>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. 그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,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.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## 화답송

시편 96(95), 1-2ㄱ, 2ㄴ-3, 5ㄴ-6(◎ 11ㄱ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주님께 노래하여라, 새로운 노래를. 주님께 노래하여라, 온 세상아.  
주님께 노래하여라, 그 이름 찬미하여라. ◎

○ 나날이 선포하여라, 그분의 구원을. 전하여라,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,  
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. ◎

○ 주님은 하늘을 지으셨네.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, 권능과 영화가  
그분 성소에 있네. ◎

## 복음 환호송

루카 2,32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그리스도,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시며,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.

◎ 알렐루야.

## 복 음 〈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〉

✠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2, 22-35

<sup>22</sup>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,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. <sup>23</sup> 주님의 율법에 “태를 열고 나온

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.”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.<sup>24</sup>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“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”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.

<sup>25</sup>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.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,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,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.<sup>26</sup>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뵈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 주셨다.

<sup>27</sup>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.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,<sup>28</sup>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.

<sup>29</sup> “주님,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,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.<sup>30</sup>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.<sup>31</sup>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,<sup>32</sup>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,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.”

<sup>33</sup>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.<sup>34</sup>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,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. “보십시오,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,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.<sup>35</sup>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,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## 12월 30일 목요일 성탄 팔일 축제 내 제6일

**제1독서** 〈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.〉

□□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.

2, 12-17

<sup>12</sup> 자녀 여러분,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,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 덕분에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.<sup>13</sup> 아버지 여러분,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,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. 젊은이 여러분,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,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.<sup>14</sup> 자녀 여러분,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까닭은,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. 아버지 여러분, 내가 여러분에게

이 글을 쓴 까닭은,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. 젊은이 여러분,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까닭은, 여러분이 강하고,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며,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.

<sup>15</sup> 여러분은 세상도, 또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.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,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. <sup>16</sup> 세상에 있는 모든 것, 곧 육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,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. <sup>17</sup> 세상은 지나가고,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.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## 화답송

시편 96(95), 7-8, 8-9, 10(◎ 11)

〈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〉

◎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.

〈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〉

○ 주님께 드려라, 뭇 민족의 가문들아. 주님께 드려라, 영광과 권능을.  
주님께 드려라, 그 이름의 영광을. ◎

○ 제물 들고 그분 앞뜰로 들어가거라.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.  
온 세상아,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. ◎

○ 겨레들에게 말하여라. “주님은 임금입니다. 우리는 정녕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고,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.” ◎

## 복음 환호송

◎ 알렐루야.

○ 거룩한 날이 우리를 비추네. 민족들아,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. 큰  
빛이 땅 위에 내렸네.

◎ 알렐루야.

**복 음** 〈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.〉

✠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2, 36-40

그때에 <sup>36</sup>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, 프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.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, 혼인하여 남편과 일곱 해를 살고서는, <sup>37</sup> 여든네 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.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

없이,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. <sup>38</sup>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아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,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.

<sup>39</sup>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, 예수님의 부모는 갈릴래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.

<sup>40</sup>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,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## 12월 31일 금요일 성탄 팔일 축제 내 제7일

**제1독서** <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.>

□□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. 2, 18-21

<sup>18</sup> 자녀 여러분,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. ‘그리스도의 적’이 온다고 여러분이 들은 그대로, 지금 많은 ‘그리스도의 적들’이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. <sup>19</sup> 그들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지만, 우리에게 속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.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, 우리와 함께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아무도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

<sup>20</sup>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.

<sup>21</sup>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,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. 또 진리에서는 어떠한 거짓말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## 화답송

시편 96(95), 1-2, 11-12, 13(◎ 11ㄱ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.

<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>

- 주님께 노래하여라, 새로운 노래를. 주님께 노래하여라, 온 세상아. 주님께 노래하여라, 그 이름 찬미하여라. 나날이 선포하여라, 그분의 구원을. ◎
-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.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.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,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. ◎
- 그분이 오신다.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.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.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,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. ◎

## 복음 환호송

요한 1,14-12

- ◎ 알렐루야.
-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.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네.
- ◎ 알렐루야.

## 복 음 <말씀이 사람이 되셨다.>

✠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의 시작입니다. 1,1-18

- <sup>1</sup>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.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, 말씀은 하느님이셨다.
- <sup>2</sup>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.
- <sup>3</sup>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,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. <sup>4</sup>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,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. <sup>5</sup>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,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.
- <sup>6</sup>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,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. <sup>7</sup> 그는 증언하러 왔다. 빛을 증언하여,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. <sup>8</sup>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.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.
- <sup>9</sup>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. <sup>10</sup>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,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,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. <sup>11</sup>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,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이하지 않았다.
- <sup>12</sup>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,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,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. <sup>13</sup> 이들은 혈통이나 육육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,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.
- <sup>14</sup>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.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.

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.

<sup>15</sup>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. “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. ‘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,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.’”

<sup>16</sup>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. <sup>17</sup>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,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.

<sup>18</sup>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.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,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 주셨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